

한·미 FTA 시대 국내 양돈산업의 살길



김동환 회장
(사)대한양돈협회

한·미 FTA 양돈산업 가장 큰 타격 예상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축산업은 한·미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이며 그 중에서도 양돈산업의 타격은 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정도로 크다.

수입 돼지고기는 지난해 이미 21만 554톤이 수입되어 국내의 전체 돼지고기 소비량 88만 5,900여톤중 약 24%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미국산은 수입국중 최대인 6만849톤으로 수입물량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산 돼지고기와 함께 값이 싼 미국산 쇠고기가 함께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여 국내 양돈산업은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그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되는 등 국내 양돈인들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축산분야 협상에서 정부는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이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타결되어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꼼꼼히 살펴보면 쇠고기(15년), 닭고기(12년) 등 다른 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5~10년의 관세철폐 기간일뿐만 아니라 전체 수입물량중 95%에 해당하는 냉동육 등에 대해 한·미 FTA 국회 비준일정과 관계없이 2014년에 관세를 없애는 것으로 협상되어 양돈산업이 가장 빨리,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을 예상케 하고 있다.

지난 해 양돈협회에서 발표한 '한·미 FTA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동시에 FTA 체결로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샌드위치 상황에서 국내 양돈산업 예상 피해액이 최소 8천243억원에서 많게는 최대 1조 869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또한 양돈농가의 근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경쟁력 있는 양돈산업 위한 체질 개선 정책 마련되어야

무엇보다도 양돈농가의 위기감을 타개하고 국내 양돈산업이 살 수 있는 길은 FTA 경쟁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에서 조성하는데 있다.

정부는 한·미 FTA협상 타결 직후 축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보전을 강화하고, 폐업 보상금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같은 지원 대책은 이미 칠레와의 FTA 협상이후 반복되고 있는 119조 대책과 같은 추상적인 장밋빛 장기대책의 반복일 뿐이다.

양돈인들은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양돈산업의 FTA 지원대책은 피해 양돈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국내 양돈산업이 당당하게 미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돈협회는 정부가 향후 5년내에 국내 양돈산업 생존을 위한 확실한 지원과 법률적 보장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미 FTA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경쟁력을 강화, 나라의 부(富)를 살찌우고 국민소득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각 산업부문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크게 우려할 일이다. 따라서 한·미 FTA 타결에 따라 양돈산업이 입을 피해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장·단기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국내 양돈농가들이 불안감에 겁을 먹고 지레 산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 FTA에 이어 한·EU, 한·중 FTA 추진과 DDA 협상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확보 대책과 함께 국산 돼지고기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양돈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특단의 정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경쟁력은 양돈농가 의식 개선부터

이와 함께 강조되는 것은 양돈농가의 의식이다. FTA 피해대책 마련 요구와 함께 궁극적으로 가격과 품질 안전성 등에서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번 한·미FTA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줄줄이 이어질 양돈 강대국들과의 FTA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양돈농가들의 변화된 마인드가 절실하다. 궁극적으로 FTA는 산업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과 의식의 변화까지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돈협회는 한·미 FTA라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장지향적인 경제마인드로 무장하고 양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패배의식은 양돈산업의 몰락만 부를 뿐이다. 양돈인들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미국 양돈산업과 경쟁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식량안보, 식량주권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터전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손에 잡히지 않는 구름잡는 장밋빛 장기대책보다 우리 양돈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의지표명과 대책마련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내 양돈산업을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전제된 다음에야 우리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돈**